

저작권 계약 채널 둘러싼 일부 오해 · 갈등

‘보리’ 사례, 남북출판 교류의 분수령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바람직한 선례와 원칙 마련해야’

남북간의 저작권거래는 그동안 제3국을 통한 우회적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각 산하 부서인 저작권사무국과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통한 직접 거래로 바뀌면서 그같은 관행에 익숙했던 국내 출판업계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측의 저작권사무국과 남측의 경문협이라는 한층 공식적인 루트가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사무국이 이전 간접 루트에 의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제3국의 출판사를 통해 계약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한 출판사들의 계약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훈서적 · 보리출판사, 경문협 및 북측 저작권자 · 저작권사무국 갈등

《황진이》를 출간한 바 있는 대훈서적과 북측 저자 홍석중 씨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문학상(제18회 만해문학상)을 받기도 한 《황진이》는 계간 <통일문학>에 3차례 나누어 실린 후 대훈서적을 통해 지난해 출간됐다. 대훈서적 김주팔 대표는 “2003년 북한 나진에서 북한 조선수출입사와 계약을 맺고 돈까지 지불했을 뿐 아니라 저자 홍석중 씨도 이에 동의한 근거자료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홍석중 씨는 경문협 측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남측 일부 출판기관들이 이 작품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들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며, 앞으로 이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를 감시 및 관리·통제하도록 하는 사업을 위임한다”는 확인서에 수표(사인)를 했다. 현재 경문협 측은 대훈서적에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을 받아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다시 출간하라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북한의 ‘조선고전문학선집’ 100권에 대한 저작권을 사들여 작년 11월부터 ‘겨레고전문학선집’을 출간하고 있는 보리출판사 역시 저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보리출판사는

아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근 북측이 저작권을 팔아달라고 경문협 쪽에 제출한 도서목록 70여 종 중 50종이 바로 ‘겨레고전문학선집’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보리’ 측은 “사실상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경문협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저작권사무국 말만 믿고 부당하게 ‘정식 저작권 계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리출판사는 북한 문학예술출판사의 위임을 받은 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료로 1만, 5000달러를 지불했으며, 동일부가 요구하는 반입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수입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당할지도 모르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문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리는 “그동안 제3국을 통한 계약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남북교류에 기울여온 노력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리출판사 저작권 부당침해 소송

경문협, ‘법정 사태 바람직하지 않아’

경문협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북측으로부터 저작권 중계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관리통제까지 위임받은 상태에서 무조건 한쪽의 편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동일부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남북간 저작권 분쟁의 ‘실제’에 있어선 별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공식채널인 저작권사무국 측에 문의한 결과 문학예술출판사는 고려민족문화연구원에 판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문협 측은 이 사태가 법정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정으로 가서 문제화될 경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저작권 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문협은 “보리출판사 측에서 나름대로 저작권계약을 맺으려는 노력을 했고 이미 출간을 시작한 상태인 만큼 계약한 목록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겠다”며 “다만 북측에서 ‘보리’와 저작권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만큼 북한 저작권관리국을 통해 문학예술출판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수용할 경우 보리는 계속해서 겨레고전문학선집을 낼 수 있게 되지만, 문학예술출판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저작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간 대화채널 절실, 협상으로 풀어야

사실 통일부가 북측 저작권사무국의 남북저작권 교류 절차와 관련한 통지사항을 수용한 것도 “남북간 저작권 교류제도가 불비한 관계로, 그동안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과 관련하여 권리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둘러싼 출판업자 간의 법률 분쟁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수표와 저작권사무국의 확인이 있어야만 저작권을 인정하겠다는 북측의 입장은 통일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이었고, 지난 4월 19일자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3자를 통해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수입해온 출판사들 역시 나름대로 남북출판교류를 위해 힘써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다만 “이는 북측 저작권자가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며 “북한의 저작권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사무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내 출판사로선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남북출판교류를 연구하고 있는 범우출판문화재단 이두영 이사는 “충분히 예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그동안 제3자를 통해 계약을 맺은 도서는 정부 쪽에서 공식승인이 안된 상태”라며 “북한 당국에서 이를 무효화하면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북한은 저작권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주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결국 현 단계에서 북한이 그렇듯 남한에서도 정부로부터 제도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대표 채널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하루빨리 협상,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잘만 해결하면 남북출판교류의 좋은 선례 자리매김’

보리출판사 측에서도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곤경에 빠졌다”며 “그동안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 민간에서 남북저작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지 명확한 방법론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문협도 “정부 측에 저작권 문제를 통합·관리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남북출판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문협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보리출판사의 ‘겨레고전문학선집’은 북한이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와 남한의 뛰어난 편집노하우가 만난 결과”라며 “잘만 풀어나가면 오히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이번 일이 법정에까지 가는 것은 누가 이기든 간에 남북출판교류의 앞날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

취재_신동섭 기자

북한 저작물 이용현황

업체	계약상대자	이용안내		처리일	비고
		구분	도서명		
여강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출판계약	《리조실록》	1992년 계약, 1993년 출판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출판계약	《동의보감》	1994년 계약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기동맹중앙위원회	공동출판	렌즈로 본 조국	1998년	
이현복(서울대)	노길룡(해산사범대)	공동집필	남북한 언어비교연구	1998년	전시도록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 네트워크 연구소		협력사업 반입신고	북한 문화재 자료(9종 10권) 165달러(약 19만8,000 원)	1998. 11. 7	
푸른숲	저자 직접계약	권리양도계약	《내 고향 개성이야기》	1999. 4 2000. 6 출판	원고, 재미교포 대리계약
월간 《말》		반입	《주몽》 《위암의 림상》 《평양건설전사》 - 무상	1999. 6. 25	정식 판권계약 조건으로 출판가능
서울대출판부	조선출판물 수출입사	이용허락	조선유적유물도감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으로 개제 출판	2000년	연변대 고적연구소 중개
삼성당, 대산출판사	조선출판물 수출입사	출판권 양도 및 공동출판 합의서 교환	‘조선의 요리전집’ (전 4권) ‘조선의 민족전통’ (전 8권)	2000. 1 계약사실 공표	
대훈서적	문학예술출판사	출판계약	《황진이》	2003년 계약	소설
	연변문학월간사	영인계약	월간 《조선문학》 영인	2001 계약, 2002년 속자간행	

*출처: (재)범우출판문화재단 주최 제1회 ‘통일지향적 남북출판정책개발’ 세미나 발제문 <남북한 출판교류협력기반 조성방향>(이두영, 2004.12)

*지난 2004년 12월 3일까지 조사된 내용임.